

영화 콘텐츠

(비중확대/Maintain)

부산국제영화제, 중국의 부상과 내년도 라인업 확인

- 영화제 20주년, 지역적으로는 중국과 인도 부상, 디지털 플랫폼 대두되며 IP 거래 확대
- 투자배급사 2016년 라인업 발표. CJ E&M 다양한 장르와 미국/아시아 합작 영화 공개, 쇼박스는 멜로, 액션 및 재난 영화 부각, NEW도 판타지 및 재난 영화 중심으로 계획 중
- CJ E&M(매수/TP: 110,000원), 쇼박스(매수/TP: 11,000원), NEW(TB/TP: 17,000원) 제시

스무 살 청년이 된 부산국제영화제,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영화의 현재

1) 영화제: 중국, 인도 등 신흥 시장의 부상

부산국제영화제(이하 부국제)는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주요 상영작으로는 현재 신흥 시장인 중국과 인도의 영화가 부각되었다. 1일 개막작은 바로 인도 영화 ‘주비안(모세스 싱 감독)’이었고, 10일 상영될 폐막작은 중국/미국 합작 중국어 영화 ‘산이 울다(래리 양 감독)’이다. 또한 중국 역대 최고 박스 오피스 성적을 기록한 ‘몬스터 헌트(捉妖記)’도 4일에 상영되었다.

‘아시아 영화의 창’ 섹션에는 특히 국가 간 합작영화가 많이 포함되었다. 배우 손예진이 출연한 한중 합작 ‘나쁜 놈은 반드시 죽는다’, 한-인도네시아 합작 ‘내 마음의 복제’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 영화의 오늘_파노라마’ 섹션에는 천만 관객을 넘은 ‘국제시장’, ‘암살’, ‘베테랑’ 등 블록버스터 뿐 아니라, 김기덕 ‘스톱’, 홍상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등의 비주류 작품들도 포함되었다.

2) 필름마켓: 전통적인 영화 판권 외에 웹드라마 등 E-IP도 판매 시작

아시아필름마켓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다. 영화제 기간 내 함께 개최되는 행사로서 영화 산업의 전 단계를 아우르는 산업의 장이다. 올해 특이한 점은 엔터테인먼트 지적재산권(이하 E-IP) 마켓이 세계 최초로 열렸다는 점이다. 영화 등 전통 지적재산권뿐 아니라, 웹, 모바일 등 신규 플랫폼에서 활용 가능한 스토리 포맷이 있는 웹드라마, 게임 등 넓은 범위의 E-IP가 거래된다.

‘중국 제작자 포럼’도 처음 개최된다. 중국 영화 역대 박스오피스 매출 상위 영화 제작자 5인이 중국 영화 시장의 성공 요인과 공동제작 현황, 미래 전망 등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가 6일에 있을 예정이다. 해당 패널 중에는 CJ E&M의 중국 합작 영화 ‘이별계약’, ‘20세여 다시 한번’ 제작으로 유명한 중국 Huace Union Partners의 유영호 대표도 포함되었다. ‘20세여 다시 한번’의 중국 성과는 CJ E&M의 이번 3분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그림 1.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포스터(좌) 필자의 영화제 참석 배지 사진(우)



주: 영화제 배지 좌측 바코드는 개인정보 관계로 삭제 처리, 자료: 부산국제영화제,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투자배급사, 제작사, 투자사 등 민간 사업자의 관점

1) 투자배급사: 국내 수익성 향상 및 해외 사업 확대를 목표

CJ E&M(130960), 쇼박스(086980), NEW(160550) 등 상장된 주요 영화 투자배급사들은 공통적으로 국내는 수익성을 향상하고, 해외에서는 중국 진출 등을 통한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내년 국내 라인업은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롯데쇼핑 사업부문) 등 극장 사업자가 그룹 내 존재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20편 내외의 라인업을 예정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쇼박스와 NEW는 10여편 내외의 메인 투자 작품을 계획 중이다. 최근 천만 영화 개수가 늘어나는 모습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4백~6백만명 관객을 기록하는 ‘중박 영화’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 또한 발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투자배급사는 텐트폴 대작뿐 아니라, 개별 작품마다 손익분기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실적의 안정성이 보장될 전망이다.

해외 사업은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CJ E&M은 내년 중국 5편, 미국 1편, 동남아(베트남/인도네시아) 4편 등을 합작할 예정이다. 쇼박스는 중국 하이브라더스와의 계약을 기반으로 3년 간 6편의 중국 합작 영화를 계획 중인데, 내년 여름부터 개봉될 가능성이 있다. NEW는 2대 주주 화처미디어와의 JV ‘화책합신’을 기반으로 3편의 중국 합작 계획을 공개했다. 해외 현지에서의 개봉 성과는 주가에도 중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 제작사: 기획 개발의 중요성, 국내 흥행을 넘어 해외 사업성까지 고려하는 단계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를 제작했고, 현재 영화 ‘신과 함께(웹툰 원작)’를 제작 중인 제작사 리얼라이즈픽처스를 통해 영화 제작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들어보는 기회가 있었다.

영화의 여러 제작 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획 개발’이라고 강조했다. 시나리오가 나온 후, 배우와 감독, 예산까지 짜는 패키징 단계이다. 현재 투자사는 판단 기준으로 ‘배우’를 우선시하고, 배우는 바로 ‘감독’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기획이 잘 된 작품만이 투자사, 나아가 소비자인 관객의 선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손익분기점을 넘은 흥행 수익에 대해 제작사가 배분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는 환경이다.

제작사 입장에서도 중국 영화 시장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중국 영화는 한국의 감독, 배우 등을 선택적으로 접촉해서 자국 영화에 개별 프로젝트 성격으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국과 한국 영화 산업 간의 동등한 파트너십 및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감독, 스태프, 배우 등이 시나리오와 결합된 ‘패키지’ 형태로 대응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개별 스태프, 배우 단위가 아닌, 투자배급 기업이 나서서 중국과 합작을 진행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3) 투자사: 중국 영화 산업 구조의 특징, 투자 측면에서의 역할 및 중요성 증대

문화 콘텐츠 투자 분야의 대표적인 벤처캐피탈 유니온투자파트너스를 통해 중국 영화 산업의 구조와 합작 영화의 실제 패키징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중국 영화 산업 구조가 한국과 다른 점은 각 이해 관계자의 배분율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경우 박스오피스 매출을 극장과 배급사가 대략 5:5로 배분하나, 중국은 6:4 정도로 극장 사업자의 배분이 많다. 작품 흥행 수익의 배분도 한국은 투자사와 제작사가 대략 6:4로 배분하나, 중국은 8:2 정도로 투자사의 몫이 더 많다. 국내 투자배급사는 중국 내 배급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구조이다. 실제로 CJ E&M의 중국 법인 ‘상하이 이허야 미디어’는 투자법인 성격이며, 쇼박스도 국내 본사가 중국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투자사 입장에서도 역시 한국 영화 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때 기획 프로젝트의 패키징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스토리, 스태프, 배우, 투자 등을 패키징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니온투자파트너스도 글로벌콘텐츠펀드1호를 통해 패키징 형태로 한중 합작 영화 ‘바운티 헌터스(신태라 감독, 이민호/탕옌 주연)’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화진흥위원회 등 정책 당국의 관점

1) 중국 영화 시장의 속성에 대한 이해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서 중국 영화 시장의 규모와 성장성 등 수량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부의 규제와 소비자의 선호도 등 속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했다.

중국 영화 시장은 글로벌 시장 내 홀로 폭주하고 있다. 2014년 중국 영화 시장 전체는 전년 대비 32% 성장했으며, 관객 수는 8.3억명(한국의 4배)을 기록했다. 중국 영화 시장의 흥행 수입은 자국 영화는 162억 위안, 외화는 135억 위안으로 점유율은 각각 55%, 45%를 차지했다. 배급사 점유율은 ‘중양’ 33%, ‘화샤’ 23%로 국영 계열이 압도적이다.

중국의 외화 흥행률은 규제 상황을 감안하면 높은 편이다. 중국은 분장제(흥행 수입의 일정 비율을 배분받는 방식) 34편, 매단체(일정 금액만 받고, 흥행 수입에 대해서는 배분받지 않는 방식) 30편 등으로 외화 상영에 대한 연간 쿼터가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 외화는 대부분 미국 할리우드 영화이며, 이에 대한 중국의 직접적인 제작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작년의 중국 흥행작 ‘트랜스포머4’, 올해 ‘분노의 질주’, ‘미션 임파서블5’ 등이 대표적인 투자 사례이다.

올해 중국 박스오피스에서 흥미로운 사건은 7월에 개봉한 ‘몬스터 헌트(捉妖記)’가 올해뿐 아니라 중국 역사상으로도 최고 흥행 수입을 올린 것이다. 중국의 고전 판타지 소설 ‘요재지이’에 모티브를 얻어 만든 청년의 몸에서 탄생한 아기 요괴 ‘후바’의 이야기인데, 실사와 애니메이션이 배합된 중국형 SF 영화이다. 해당 영화가 박스오피스 1위가 되는 데에는 정책적인 환경도 크게 작용했다. 중국 정부가 바로 8월을 ‘국산 영화의 달’로 지정하여 외화의 상영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중국 관객의 선호 장르는 판타지와 코미디 등이다. 중국의 판타지 장르는 현재 SF에 강한 미국 영화가 대표적이고, 코미디는 중국 자국 영화가 인기가 있는 편이다. 중국은 특히 등급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전 연령이 관람이 가능해야 한다. 검열 기준도 엄격하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다양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그래서 장르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영화는 많이 제작되지도 않고, 흥행한 사례도 아직 많지 않은 편이다.

또한 중국 영화라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여름에 개봉한 ‘와일드 시티’, ‘왕조의 여인 양귀비(王朝的女人·杨贵妃)’, ‘태평륜: 피안(太平轮: 彼岸)’ 등의 중국 영화 기대작들이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서, 유명 감독과 화려한 캐스팅, 높은 제작비라는 조합이 더 이상 흥행 보증수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반면, 중국 공산당과 일본군의 전투를 그린 이데올로기 홍보 성격의 ‘백단대전’은 흥행 상위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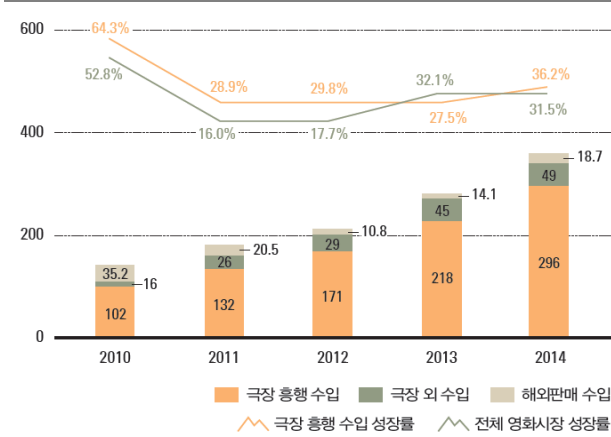
2) 한중 영화 협력의 가능성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규제 환경 및 정서적인 차이로 인해 한국에서 흥행한 영화가 중국에서 성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영화가 중국에서 상영되기 위해서는 소재 자체에서 검열이 걸리지 않아야 하며, 소재는 팬텀더라도 스크린 쿼터라는 작은 시장을 통과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전 연령 관객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스토리를 해치는 정도로 편집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결국 처음부터 중국에 맞춰 기획하여 영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르적인 특성에 익숙하지 않은 관객이 많고, 검열 및 미등급제 때문에 가족극이나 코미디 등이 현재 중국에서 흥행에 안전한 장르로 대두되고 있다. 다만 향후에는 중국 관객의 눈높이가 향상되고, 다양성이 도모되면서 장르 영화에 대한 제작 역량의 수요가 많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작년년부터 한국 영화의 수입 국가 1위가 기존 일본에서 중국으로 역전되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중국의 제작 인력은 아직 부족하고, 제작진들의 역량은 양극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중국 내 극장 인프라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한중 정부 차원의 영화 공동제작 협정 등도 맺어져 있다. 중국 콘텐츠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가 한국이 될 가능성은 풍부하다는 결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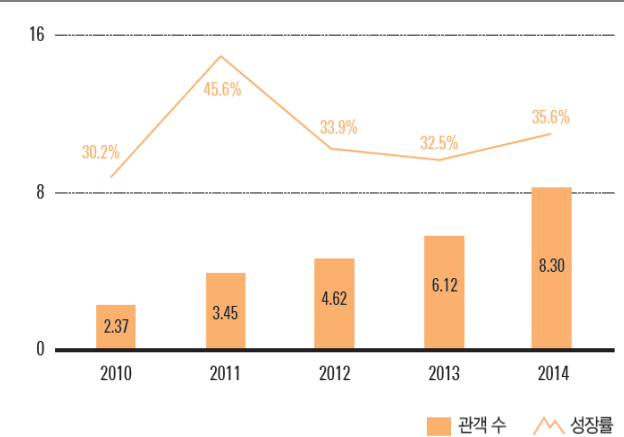
3) 중국 영화 시장의 주요 통계

그림 2. 중국 영화 시장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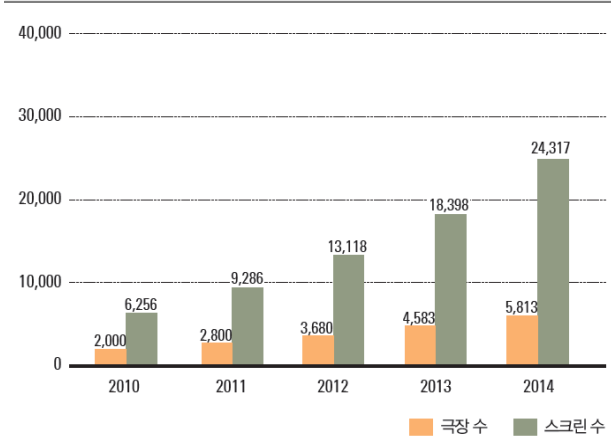
단위: 억 위안,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중국 영화 시장 관객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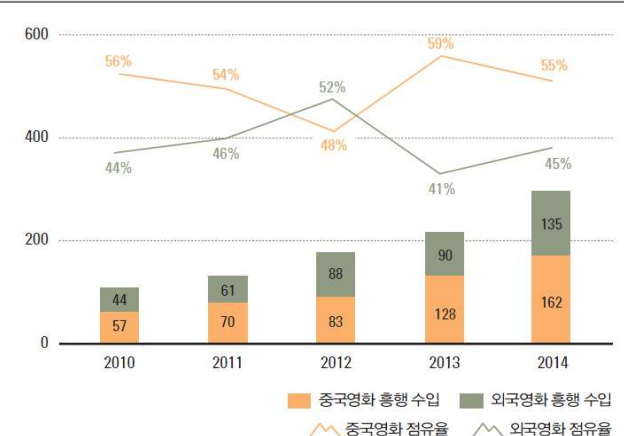
단위: 억 명,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중국 내 극장 및 스크린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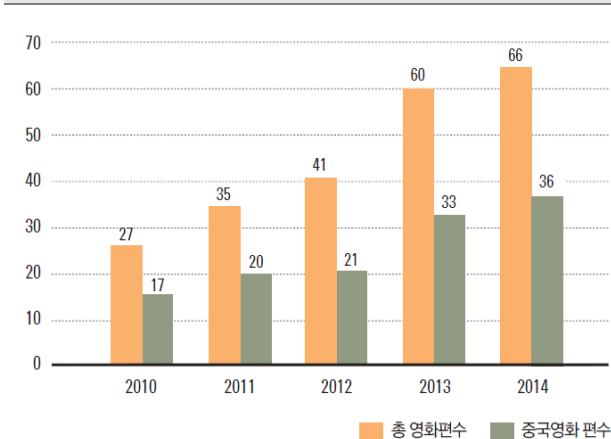
단위: 개,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중국 내 자국 영화/외화 흥행 수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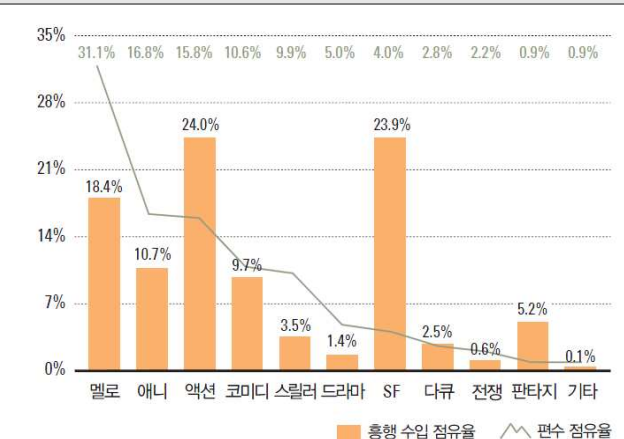
단위: 억 위안,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흥행 수입 1억 위안 이상 영화 편수 추이



단위: 편,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중국 영화 장르별 흥행수입 및 개봉 점유율 (2014년 기준)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016년 라인업: 다양한 한국 영화 개봉 예정 및 중국 사업 구체화

1) CJ E&M(매수/TP: 110,000원): 내년 다양한 한국 영화, 해외는 4개국 작업 중

CJ E&M은 내년 주요 배급사 중 가장 많으면서도 다양한 장르의 한국 영화를 준비하고 있다. 내년 주요 기대작은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비트’의 김성수 감독과 정우성이 다시 뭉친 ‘아수라’, ‘광해’의 추창민 감독이 연출하는 ‘7년의 밤’, 강우석 감독의 사극 ‘고산자, 대동여지도’ 등이다.

당장 올해 4분기에는 ‘성난 변호사’, ‘돌연변이’, ‘검은 사제들’, ‘히말라야’ 등이 개봉될 예정이다. 4분기 텐트폴은 ‘히말라야’이다. 한국의 대표 산악인 엄홍길 대장이 히말라야 에베레스트에서 생을 마감한 후배 대원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 목숨을 걸고 떠난 여정을 담은 실화 영화이다.

내년 해외 기획 합작 영화는 중국을 중심으로 총 4개국에서 개봉을 계획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평안도’를 시작으로 ‘파이널 레시피’가 개봉될 예정이고, ‘씨니’와 ‘시간이탈자’의 중국판 영화, ‘강호출산기’도 개봉될 예정이다. 베트남 3편, 인도네시아 1편, 미국 1편 등도 예정되어 있다.

내년 라인업 개수가 많고, 무엇보다 해외 예정 라인업도 연간 10편에 달하기 때문에 영화사 하나가 더 생긴 상황이라 봐도 무방하다. 국내에서는 흥행 및 수익성 계임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해외 현지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다면 주가의 모멘텀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CJ E&M의 올해 4분기 및 2016년 개봉 영화 라인업

국가	영화 제목	감독	주연
한국(액션, 스릴러)	성난 변호사(10월 개봉)	허종호	이선균, 김고은
	검은 사제들(11월 개봉)	장재현	김윤석, 강동원
	행복이 가득한 집(가제)	이경미	손예진, 김주혁
	7년의 밤	추창민	류승룡, 장동건
	아수라	김성수	정우성, 황정민, 주지훈
	조작된 도시	박광현	지창욱, 심은경
	아가씨	박찬욱	김민희, 하정우, 조진웅
	명탐정 홍길동	조성희	이제훈, 김성균
	시간이탈자	곽재용	임수정, 조정석, 이진욱
	한국(휴먼, 드라마, 로맨스)	히말라야(12월 개봉)	이석훈
형(가제)		권수경	조정석, 도경수
나를 잊지 말아요		이윤정	정우성, 김하늘
해피 페이스북(가제)		박현진	이미연, 유아인, 김주혁, 최지우, 강하늘, 이숨
한국(사극)	고산자, 대동여지도	강우석	차승원, 유준상
	김선달	박대민	유승호, 조재현
	도리화가	이종필	류승룡, 배수지
	궁합	홍창표	심은경, 이승기
한국(다양성)	돌연변이(10월 개봉)	권오광	이광수, 이천희, 박보영
	여교사	김태용	김하늘, 유인영, 이원근
	글로리데이	최정열	지수, 수호
	우리들 세상	윤가은	최수인, 설혜인
중국	평안도	장윤현	황리성, 타이리런
	파이널 레시피	김진아	양자경, 헨리
	씨니	미정	제작 준비 중
	시간이탈자	한연	미정
	강호출산기	김지훈	미정
베트남	Sweet 20	판 지아 낫 린	미우 레, 후아 비 반
	LOVE	비엣 맥스	치 푸, 길 레
	Housemaid	데릭 응웬	미정
인도네시아	A Copy of My Mind	조코 안와르	타라 바스로, 치코 제리코
미국	더 영 메시아	사이러스 노리스테	손 빈, 데이빗 브래들리

주: 개봉월 표기한 작품은 2015년 기준, 따로 표기하지 않은 작품은 2016년 개봉 예상, 일부 작품은 2017년 개봉할 수도 있음
 자료: CJ E&M,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 쇼박스(매수/TP: 11,000원): 멜로/액션/재난 영화 예정, 중국 화이브리더스 합작

쇼박스의 내년 한국 라인업은 멜로, 액션, 재난 장르 등이 부각된다. 멜로로 전도연과 공유가 핀란드에서 만나는 ‘남과 여’, 문채원과 유연석이 부산행 KTX에서 만나는 ‘그날의 분위기’ 등이 준비되어 있다. 두 영화는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개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텐트폴은 ‘검사와전’과 ‘터널’로 추정된다. ‘검사와전’은 살인 누명을 쓴 검사가 사기꾼과 함께 복수하는 설정으로 액션 영화이며, 황정민과 강동원 주연이다. ‘터널’은 부실공사로 무너진 터널 속에 갇힌 설정의 재난 영화로서, ‘끝까지 간다’의 김성훈 연출, 하정우 주연이다. 중국 화이브리더스와 합작하고 있는 중국어 제작 영화는 내년 여름부터 개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쇼박스의 올해 4분기 및 2016년 개봉 영화 라인업

국가	영화 제목	감독	주연
한국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10월 개봉)	전운수	지진희, 김성균, 성유리
	내부자들(11월 개봉)	우민호	이병헌, 조승우, 백윤식
	남과 여	이윤기	전도연, 공유
	그날의 분위기	조규장	문채원, 유연석
	가족계획	김태곤	김혜수, 마동석
	검사와전	이일형	황정민, 강동원
	부활	곽경택	김래원, 김해숙, 성동일
	가려진 시간	엄태화	강동원
	사랑의 바이러스	강이관	이선균
	살인자의 기억법	원신연	설경구, 김남길, 설현
	증거불충분	윤종석	미정
	터널	김성훈	하정우, 오달수
	키 오브 라이프	이계벽	유해진, 이준, 조윤희
한국(미국 합작)	(블룸하우스-아이반호 합작)		5년간 6편 제작 한국어 영화 개봉 예정
중국	(화이브리더스 합작)		3년간 6편 제작 중국어 영화 개봉 예정

주: 개봉월 표기한 작품은 2015년 기준, 그 외 2016년부터 예정, 자료: 쇼박스, 언론보도 종합,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3) NEW(Trading Buy/TP: 17,000원): 판타지/재난 영화 계획, 중국 ‘화책합신’ 시동

NEW의 내년 한국 라인업은 판타지, 재난 장르 등이 부각된다. ‘루시드 드림’은 판타지와 스릴러가 혼합된 영화이며, ‘부산행’과 ‘서울역’은 판타지와 재난 장르가 혼합된 영화다. ‘판도라’는 내년도 텐트폴로 추정되는데 ‘연가시’의 박정우 감독이 원자력 발전소를 소재로 만든 재난 영화이다.

NEW는 당장 올해 연말에 텐트폴 영화 ‘대호’ 개봉이 예정되어 있다. ‘신세계’의 감독과 배우 최민식이 다시 만나서 찍은, 조선의 마지막 호랑이를 잡는 명포수 이야기이다.

중국 사업은 2대 주주 화처미디어와 세운 JV ‘화책합신’을 통해 3편의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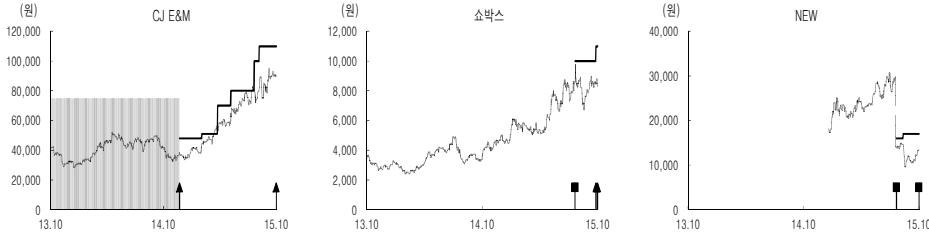
표 3. NEW의 올해 4분기 및 2016년 개봉 영화 라인업

국가	영화 제목	감독	주연
한국	더 폰(10월 개봉)	김봉주	손현주, 엄지원, 배성우
	열정 같은 소리하고 있네(11월 개봉)	정기훈	정재영, 박보영
	대호 (12월 개봉)	박훈정	최민식, 이은우
	오빠 생각	이한	임시완, 고아성
	루시드 드림	김준성	고수, 설경구, 강혜정, 박유천
	널 기다리며	모홍진	심은경, 윤제문, 김성오
	부산행	연상호	공유, 마동석, 정유미
	장산범(가제)	허정	염정아
	판도라	박정우	김남길, 김명민, 정진영
	사랑하기 때문에	주지훈	차태현, 김유정, 성동일
	감옥에서 온 편지	권종관	김명민, 김상호, 김향기
	서울역	연상호	류승룡, 심은경, 이준
	마녀	김대우	미정
중국(화책합신, JV)	마녀	첸정다오	미정 (강풀 웹툰 '마녀' 원작)
	뷰티 인사이드	백감독	미정 (한국 '뷰티 인사이드' 중국판)
	더 폰	미정	미정 (한국 '더 폰' 중국판)

주: 개봉월 표기한 작품은 2015년 기준, 그 외 2016년부터 예정, 자료: NEW, 언론보도 종합,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추이

종목명(코드번호)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종목명(코드번호)	제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CJ E&M(130960)	2015.08.11	매수	110,000원	쇼박스(086980)	2015.09.30	매수	11,000원	
	2015.07.26	매수	100,000원		2015.07.26	Trading Buy	10,000원	
	2015.05.11	매수	80,000원		NEW(160550)	2015.08.16	Trading Buy	17,000원
	2015.03.29	매수	70,000원			2015.07.26	Trading Buy	16,000원
	2015.02.06	매수	51,000원					
2014.11.26	매수	48,000원						



투자의견 분류 및 적용기준

기업	산업
매수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20% 이상의 초과수익 예상 Trading Buy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 이상의 초과수익 예상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절대수익률 -10~10% 이내의 등락이 예상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절대수익률 -10% 이상의 추가하락이 예상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높거나 상승 중립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수준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기준 업종지수상승률이 시장수익률 대비 낮거나 약화

매수(▲), Trading Buy(■), 중립(●), 비중축소(◆), 추가(-), 목표주가(→), Not covered(■)

투자의견 비율

매수(매수)	Trading Buy(매수)	중립(중립)	비중축소(매도)
72.36%	13.57%	14.07%	0.00%

* 2015년 6월 30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